

시민 일상 공간 활용 생활밀착형 자살예방 정책 추진

김제시가 시민의 일상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경제위기군,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권판매점, 미용실, 임대아파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 중심의 자살예방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통합지원사업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형 자살예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층과 경제위기군 비중이 높은 김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복권판매점 기반 경제위기군 지원 '희망 전환 퓌플릭스' 추진

시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복권판매점을 자살위기 조기발견 거점으로 활용하는 경제위기군 특화사업 '희망전환 퓌플릭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국가중점사업 핵심과제인 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김산동·요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위기를 겪는 시민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복지·고용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팡팡로또', '내박복권', 'CU김제용역점' 등 3개소와 생명사랑 복권판매점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징후 인지 교육과 연계 절차를 안내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복권판매점 협약 △자살 예방교육 및 사업 절차 안내 △고액·충동구매 등 위기신호 포착(QR·리플릿 연계) △자살위험 스크리닝(PHQ-9·SBQ-R) △정신건강·복지·고용 워크숍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복권판매점 관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반복적으로 충동구매를 하는 손님들을 보며 걱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신호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상담 연계 과정에서는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건네줘 도움이 됐다"는 참여자 반응도 이어지며 생활 현장에서의 조기 개입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미용실 기반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 '물들어 확대 운영

시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실이라는 친숙한 생활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노인 자살예방 특화사업 '물들어'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총 19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백구면 중심 집중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지속 발전해왔다.



올해에는 금산면 소재 '근아해어샵'을 신규 생명사랑 미용실로 지정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시는 노인 자살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미용실 기반 '집 밖 유독형 안부서비스'를 운영하며 어르신의 고립감 완화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인식교육과 1:1 무료 열색을 연계한 '물들어 Day' 운영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상담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지속 상담 지원 △정신과 치료비 지원 △복지지원 연계 등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머리 손질도 받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혼자 지내다 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는 날도 많은데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생명사랑 미용실 관계자 역시 "미용실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 만큼 작은 변화도 빨리 알려주실 수 있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살피는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복권판매점 기반 경제위기군 지원 미용실 기반 독거노인 안부 확인 임대아파트 기반 안부도시락 사업 중장년 남성 요리치유 프로그램 마음건강 회복 사업 등 다채

#임대아파트 기반 안부도시락 사업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확대

독거노인과 고령층의 고립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프로젝트 '요리보고 조리보고'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2025년에 시행한 교통후면시아(10가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검서비(6가구)와 검산후면시아 3단지(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자살예방 모델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산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등 협약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락 지원과 함께 정서 회복, 주거환경 개선 복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형 모델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주 1회 안부도시락 지원 및 가정방문 △생명번영지원 운영 △생명동행신책 △생명희망공간 주거환경 개선 △통합사례회의 및 지속 심리지원·복지 연계 등이다. 특히 도시락 전달 과정에서 우울감,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사례관리 체계로 연계하는 현장 중심형 운영이 특징이다.

안부도시락 사업 참여자들은 "단순히 도시락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며 정서적 만족감을 나타냈다.



#중장년 남성 대상 요리치유 프로그램 5069의 배급시계 운영

시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을 위한 요리 기반 치유 프로그램 5069의 배급시계'도 운영한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중장년 남성 자살 위험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백구면과 요촌동 지역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생계 리듬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며, 규칙적인 식생활 형성과 정서적 안정, 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자살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주요 내용에는 △요리강사·행정복지센터 업무협약 △생명지킴이 교육 △50대 맞춤형 매뉴 개발 △배급시계 감정일기 작성 △개별 심층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혼자 생활하면서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대충 해결했는데, 직접 요리를 하며 생활리듬을 다시 찾게 됐다"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요리 프로그램 관계자는 "중장년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요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건강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마음건강 회복 돕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속 추진

최근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돌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 중장년층의 고독감, 청년층의 정서 불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전문 심리상담에 대한 시민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일회성 상담이 아닌 대상자의 심리 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통해 정서 회복과 일상 기능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김제시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우울감이나 불안감, 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되어 개인별 심리 상태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상담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위기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나 중증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치료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 심리 상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혼자 견디기 어려웠던 마음의 문제를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 "심리상담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김제형 생활밀착 자살예방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

전주매일 캠페인